

## 어머니 애착과 거절민감성이 학령기 아동의 외로움에 미치는 영향\*

The Influence of Mother Attachment and Rejection Sensitivity on  
School-Age Children's Loneliness

손은경(Son, Eun-Kyeong)\*\* · 민하영(Min, Ha-Yeoung)\*\*\*

사회적 관계의 질을 나타내는 어머니 애착과 아동의 인지적 특성을 반영하는 거절민감성을 중심으로 학령기 아동의 외로움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및 변인간 상대적 영향력을 살펴보고자 한 이 연구는 대구경북지역 6개 초등학교 4, 5, 6학년 441명을 대상으로 질문지 조사를 통해 자료 수집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 PC(15.0 version)프로그램의 일원 및 이원변량분석과 위계적 중회귀분석을 통해 유의수준 .05미만에서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학령기 아동의 외로움은 어머니 애착과 거절불안, 거절분노, 거절우울 등 거절민감성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둘째, 학령기 아동의 거절민감성은 어머니 애착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나타났다. 어머니 애착이 낮은 집단의 아동은 어머니 애착이 높은 집단의 아동에 비해 거절불안, 거절분노, 거절우울 등 거절민감성이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셋째, 학령기 아동의 외로움은 어머니 애착과 거절민감성(거절불안, 거절분노, 거절우울)에 의해 각각 유의하게 설명되나, 어머니 애착보다 거절민감성(거절불안, 거절우울)에 의해 좀 더 많이 설명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거절민감성 중 거절분노의 경우 어머니 애착에 비해 학령기 아동의 외로움에 미치는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주제어: 학령기 아동의 외로움, 어머니 애착, 거절민감성**

\* 이 논문은 2011년도 대구가톨릭대학교 석사학위청구 논문의 일부로, 2010년 추계 보육 관련 학회 통합 학술대회에서 포스터 발표한 것을 확장한 것임

\*\* 제1저자: 대구가톨릭대학 아동학과 석사, 사회복지법인 지산어린이집 교사

\*\*\* 교신저자: 대구가톨릭대학교 아동학과 부교수, hymin@cu.ac.kr

## I. 서론

왕따, 은따와 같은 은어 사용과 함께 최근 우리 사회에서 점증하고 있는 집단 소외 현상은 학교 현장에서 해결해야 할 중요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이는 물질주의 최대 병폐라 할 수 있는 '군중 속 고독'의 문제가 어린 학생들에게 확산되는 것을 최대한 경계하려는 사회 심리가 작동하기 때문일 수 있다. 군중 속 고독은 성인만의 문제가 아니다. 사회적 관계가 확장되기 시작하는 학령기 아동에게도 군중 속 고독은 주요 문제일 수 있다. 학령기 아동의 경우 사회적 관계가 급격히 확장되는 시기일 뿐 아니라 사회적 관계 기술이 발달되어야 하는 시기로 원숙한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는데 수많은 시행착오가 나타날 수 있다. 거듭되는 시행착오가 학령기 아동의 자연스런 발달 특성임에도 불구하고 능숙하지 못하고 적절하지 못한 사회적 관계 기술로 인해 학령기 아동들은 생애 어떤 시기보다 군중 속 고독을 쉽게 경험할 수 있다. 학령기 아동의 군중 속 고독은 외로움으로 표현될 수 있다. 외로움이란 자신이 기대하는 것보다 다른 사람들과 사회적, 정서적 관계가 부족하다고 느낄 때 발생하는 불유쾌한 감정의 부정적 심리 상태를 말한다(Peplau & Perlman, 1982). 이러한 외로움은 사회적 관계의 결핍에 대한 주관적 평가이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평가되는 사회적 관계망의 많고 적음과는 무관하다. 따라서 외로움은 군중 속 고독의 또 다른 표현이라 할 수 있다.

1990년 중반부터 본격적으로 연구되기 시작한 학령기 아동의 외로움에 관한 국내 연구(도현심, 1996a, 1996b; 도현심, 1999; 문소현, 2009; 최보가, 임지영, 1999; 탁정미, 이주희, 2005)는 학령기 아동의 외로움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인으로 부모의 양육행동이나 애착 등 부모와의 관계를 일관되게 지목해 오고 있다. 부모와의 관계를 통해 학령기 아동의 외로움을 설명하는 연구들은 대부분 부모의 양육행동이 온정적일 때 또는 안정적 애착유형이 높을 때 아동의 외로움은 낮게 나타나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이는 행위적 측면에 초점을 둔 부모의 양육행동이던 정서적 측면에 초점을 둔 부모애착이던 부모-자녀 관계 질은 아동의 사회적 관계의 질을 나타내는 외로움에 의미있는 영향을 미치는 중요 요인이라 할 수 있다.

부모양육행동이나 부모애착으로 나타나는 부모와의 관계 질이 아동의 사회적 관계의 질에 중요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애착이론을 주창한 Bowlby(1980)의 내적 작동모델(internal working model)처럼 어머니와의 관계에서 형성된 관계적 믿음이 타인과의 관계적 믿음에 상당 부분 적용되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어머니의 양육행동이 애정적이며 온정적이라 지각하는 아동의 믿음이나 인식이 타인의 행동에 대

해서도 애정적이며 온정적이라 지각하는 믿음이나 인식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부모의 애정적이며 온정적인 양육행동은 학령기 아동으로 하여금 사회적 관계에서 긍정적 감정을 표현하게 하고 긍정적 반응을 불러일으키게 하는 기반으로 작용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사회적 관계 지표인 외로움을 낮추는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이는 부모에 대한 애착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다. 부모 특히 주 양육자인 어머니에 대해 느끼는 안정된 애착은 타인이 자신의 요구에 반응적일 것이라 기대하게 하는 내적 표상으로 작동(Bowlby, 1980)함으로써 타인과의 관계에서 보다 우호적 관계를 유지하는 자원으로 역할한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사회적 관계에 대한 믿음이 관계의 질을 평가하는 중요 부분임을 고려해보면, 사회적 관계에 대한 인지적 평가는 사회적 관계 해석에서 중요할 수 있다.

그러나 또래와의 관계에서 인식하는 외로움은 학령기 아동의 인지적 측면에서 접근한 연구는 거의 없다. 관계에 대한 아동 자신의 인지적 평가는 관계 유지나 관계 종결 등 관계에 대한 반응과 대처 측면에서 중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령기 아동의 외로움에 관한 선행연구에서는 부모와의 관계나 또래와의 관계 등 사회적 관계 측면에서만 학령기 아동의 외로움을 이해하려고 할 뿐 사회적 관계에 대한 아동 자신의 인지적 평가를 기반으로 외로움을 연구한 것은 찾아보기 어렵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사회적 관계에 대한 아동 자신의 인지적 변인을 거절민감성 측면에 두고 학령기 아동이 외로움을 살펴보고자 한다. 한편 이 연구에서는 학령기 아동의 외로움 연구에서 이미 주요 변인으로 지목되었던 어머니 애착 변인과 외로움간의 관계도 함께 살펴보고자 한다. 이는 사회적 관계에 대한 아동 자신의 인지적 평가 특성 즉 거절민감성의 중요성을 부모와의 관계 측면에서 이해하고 평가하기 위해서이다.

사회적 관계에 대한 인지적 평가 특성과 관련하여 Downey와 Feldman(1996)이 제안한 거절민감성을 고려한 것은 거절민감성이 대인관계의 안정성을 위협하고 파괴하는 부정적 인지 특성임에도 불구하고 학령기 아동을 대상으로 한 연구(박지윤, 2003; 이경숙, 서수정, 신의진, 2000; 장미희, 이지연, 2011; 황은수, 성영혜, 2006)가 상당히 적다는 점이다. 거절민감성이란 타인으로부터 거절당했다고 생각(인지적으로 평가)할 때 나타내는 반응차이로, 타인에게 거절당할 것에 대해 쉽게 지각하고 과도하게 반응하는 경향성(Downey & Feldman, 1996; Downey, Lebolt, Rincón, & Freitas, 1998; Feldman & Downey, 1994)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사회적 관계 안에서 거부되지 않고 수용되기를 기대한다. 그러나 살아가면서 사회적 관계 안에서 어느 정도의 거부나 거절은 경험하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타인과의 사회적 관계가 시작되기 전에 미리 타인으로부터 거절당할 것이라 예상하면서 민감하게 반응하는 경우가 있다. Downey와 Feldman(1996)은 이러한 사람들을 거절민감성이 높은 사람이라 정의했다. 거절민감성이 높은 사람들은 거절 상황에 직면했을 때 거절 신호 또는 거절 단서에 선택적으로 더 많은 주의를 기울이기 때문에 거절될 것이라는 확신을 갖기 쉽다. 이러한 거절에 대한 확신은 분노 또는 적의, 낙담, 우울 등의 부정적 감정을 불러일으킬 뿐 아니라 상대방의 행동을 통제하거나 정서적 지지를 철회하는 등 상대방에 대해 부적절한 시도를 하게 만든다(Downey & Feldman, 1996; Downey et al., 1998; London, Downey, Bonica, & Paltin, 2007). 따라서 거절민감성이 높은 사람은 대인 관계에서 보다 적절한 반응 행동을 선택하지 못하게 되고 이로 인해 부정적인 사회적 관계를 경험할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가능성이 대인관계에서 쉽게 외로움을 경험하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그러나 거절민감성에 관한 연구의 상대적 부족으로 이러한 예측을 구체적으로 지지할 연구를 찾는 것은 쉽지 않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학령기 아동의 외로움이 아동 자신의 인지적 특성인 거절민감성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는지 살펴봄으로써 거절민감성이 학령기 아동의 외로움을 설명할 수 있는 의미있는 변인임을 확인해 보고자 한다. 그러나 여기서 주의할 것은 거절민감성은 크게 거절불안, 거절분노, 거절우울로 구분된다는 점이다. 거절불안이란 거절당할 것에 대해 느끼는 불안을, 거절분노란 거절 상황에서 거절당할 것에 대해 느끼는 분노를 의미한다. 그리고 거절우울은 거절당할 것에 대해 자신이 느끼는 우울을 의미한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학령기 아동이 학교 내 사회적 관계에서 느끼는 외로움을 거절불안, 거절분노, 거절우울 등 거절민감성의 하위 요인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거절민감성을 거절불안, 거절분노, 거절우울의 하위 요인을 중심으로 살펴보는 것은 불안, 분노, 우울이 모두 독립적 감정임에도 불구하고 선행연구(장미희, 이지연, 2011; Downey et al., 1998)에서는 이를 통합적으로 접근함으로써 독립적 감정이 갖는 의미가 상대적으로 축소되었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이다.

한편 학령기 아동의 거절민감성이 어머니 애착에 의해 영향받는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학령기 아동의 거절민감성과 어머니 애착 간 관계는 초등학교 5, 6학년 아동을 대상으로 한 이경숙 등(2000)의 연구에 의해 이루어진 바 있다. 이경숙 등(2000)은 어머니에 대해 안정적인 애착관계를 형성한 아동은 타인들이 자신을 수용해주고 지지해 줄 것이라는 기대감을 갖게 하는 내적작동모델로 인해, 타인과의 관계에서 거절민감성을 낮게 지각한다고 지적하였다. 그러나 이경숙 등(2000)의 연구 이후 어머니 애착과 학령기 아동의 거절민감성간의 관계를 검증하는 추후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에 이 연구에서 학령기 아동의 거절민감성이 어머니

애착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 살펴봄으로써 이경숙 등(2000)의 연구결과를 지지할 수 있는 경험적 자료를 확보하고자 한다.

학령기 아동의 외로움을 어머니와의 관계의 질을 반영하는 어머니 애착과 아동 자신의 인지적 특성을 반영하는 거절민감성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하는 이 연구는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첫째, 학령기 아동의 외로움은 어머니 애착 및 거절민감성(거절불안, 거절분노, 거절우울)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

둘째, 학령기 아동의 거절민감성(거절불안, 거절분노, 거절우울)은 어머니 애착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

셋째, 학령기 아동의 외로움을 설명하는데 있어서 어머니 애착과 거절민감성(거절불안, 거절분노, 거절우울)의 상대적 영향력에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를 통해 획득된 연구의 결과는 초등학교 현장에서 외로움을 호소하는 아동들의 상담 및 지도를 위한 참고 자료로 또는 외로움을 중재하는 프로그램 개발의 정보 지침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 II. 연구방법

### 1. 연구대상

어머니 애착과 거절민감성이 학령기 아동의 외로움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대구·경북지역 내 6개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4, 5, 6학년 441명을 대상으로 자기보고식 질문지를 통해 자료를 수집하였다. 4학년은 165명(37.4%), 5학년은 141명(32.0%), 6학년은 135명(30.6%), 남아는 218명(49.4%), 여아는 223명(50.6%)였다. 표집된 자료에 따른 연구대상의 일반적 특성은 다음 <표 1>과 같다.

<표 1> 연구대상의 일반적 특성

(n=441)

변인	변인구분	빈도
학년	4학년	165(37.4)
	5학년	141(32.0)
	6학년	135(30.6)
성별	남	218(49.4)
	여	223(50.6)
어머니 나이	35세 이하	24(5.4)
	36-40세	227(51.5)
	41-45세	156(35.4)
	46-50세 이상	34(7.7)
어머니 취업	전업 주부	154(34.9)
	취업	287(65.1)

## 2. 측정도구

### 1) 외로움

아동의 외로움은 Asher와 Wheeler(1985)가 개발한 아동의 외로움 및 사회적 불만족 질문지(Loneliness and Social Dissatisfaction Questionnaire)를 기초로 한 것으로서, 도현심(1996a)이 번안·수정한 것을 사용하였다. 전체 12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4점 Likert를 통해 측정하였다. ‘내가 원할 때는 언제든지 친구들이 가까이 있다.’, ‘학교에서 새로운 친구를 쉽게 사귄다.’ 등의 5개의 정적인 문항과 ‘학교에서 외로움을 느낀다.’, ‘반에서 이야기할 사람이 별로 없다.’ 등의 7개의 부적인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정적문항은 역산하였으며 응답 가능 범위는 1점에서 4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외로움을 더 많이 느끼는 것을 의미한다. 문항간 일치도에 의한 신뢰도 Cronbach's  $\alpha$ 는 .90이며, 평균(표준편차)은 3.24(.52)로 나타났다.

### 2) 어머니 애착

아동이 지각하는 어머니 애착은 Armsden과 Greenberg(1987)가 제작한 부모 및 또래 애착 척도(Inventory of Parent and Peer Attachment: IPPA)를 수정한 개정본(IPPA-R)을 번안하여 사용하였다. 25문항으로 구성된 어머니 애착은 5점 Likert를 통해 측정하였다. ‘부모님은 나의 감정을 존중해 주신다.’, ‘고민이 있을 때 속마음을 털어놓고 부모님께 의지한다.’ 등의 15개의 정적인 문항과 ‘부모님은 내게 너무 많은 것을 기대한다.’, ‘부모님은 내게 별 관심이 없다.’ 등의 10개의 부적인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부적문항은 역산하였으며 응답 가능 범위는 1점에서 5점

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어머니와의 애착이 더 높은 것을 의미한다. 문항간 일치도에 의한 신뢰도 Cronbach's  $\alpha$ 는 .88이며, 평균(표준편차)은 3.90(.56)으로 나타났다.

### 3) 거절민감성

학령기 아동의 거절민감성은 Downey와 Feldman(1996)이 개발한 아동용 거절민감성 질문지(Children's Rejection Sensitivity Questionnaire : 이하 CRSQ)를 기초로, 박지윤(2004)이 개발한 것을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교사나 또래와의 관계에서 불안을 경험할 수 있는 상황(12상황), 분노를 경험할 수 있는 상황(12상황), 우울을 경험할 수 있는 상황(12상황)에서 각각 불안, 분노, 또는 우울을 경험하는 정도를 6점 Likert로 평정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각 상황마다 거절예상 정도를 6점 Likert로 평정하도록 하였다. 한편 평정된 불안, 분노, 우울의 점수 각각에 거절예상 점수를 곱하여 거절불안, 거절분노, 거절우울의 점수를 구하였다. 거절불안, 거절분노, 거절우울의 각 응답 가능 범위는 1-36점 사이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대인관계 상황에서 거절에 더 민감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문항간 일치도에 의한 신뢰도 Cronbach's  $\alpha$ 는 거절불안 .87, 거절분노 .85, 거절우울 .88로 나타났다. 평균(표준편차)은 거절불안 7.08(4.34), 거절분노 6.08(3.68), 거절우울 5.14(3.47)로 나타났다.

## 3. 연구 절차

어머니 애착과 거절민감성이 학령기 아동의 외로움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2010년 5월 14일부터 6월 10일까지 자료 수집을 위해 대구 경북지역 내 6개 초등학교의 4, 5, 6학년 532명 대상으로 질문지 조사를 실시하였다.

연구자가 초등학교를 직접 방문하여 담임교사에게 연구의 목적과 질문지 응답 요령을 충분히 설명한 후 담임교사의 감독 하에 2회에 걸쳐 질문지 조사를 부탁드렸다. 질문지는 총 532부가 배부되었으나, 무응답 설문지와 질문에 답변이 성실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질문지 91부를 제외한 총 441부가 최종분석에 사용되었다.

## 4.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 Win 15.0 프로그램의 일원변량분석과 이원변량분석, 위계적 중회귀분석을 통해 분석하였으며 분석결과는 유의수준은 .05미만에서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하였다.



### Ⅲ. 결과 및 해석

#### 1. 학령기 아동의 어머니 애착 및 거절민감성(거절불안, 거절분노, 거절우울)에 따른 외로움의 차이 <연구문제 1>

(연구문제 1)인 학령기 아동의 외로움은 어머니 애착 및 거절민감성(거절불안, 거절분노, 거절우울)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는가를 알아보기 위해 이원변량분석을 실시하였다. 이원변량분석을 위해 독립변인인 어머니 애착과 거절민감성(거절불안, 거절분노, 거절우울) 변인을 3개의 집단으로 구분하였다. 어머니 애착은 점수 범위 상하위 33%를 기준으로 어머니 애착이 높은 집단, 중간 집단, 낮은 집단으로 집단 구분하였다. 상하위 33%를 기준으로 집단 구분한 것은 높은, 중간, 낮은 집단의 각 표본 수를 최대한 균등하게 확보하기 위해서이다. 거절민감성(거절불안, 거절분노, 거절우울) 역시 점수 범위 상하위 33%를 기준으로 거절민감성(거절불안, 거절분노, 거절우울)이 높은 집단, 중간 집단, 낮은 집단으로 집단 구분하였다.

<표 2> 어머니의 애착 및 거절민감성에 따른 학령기 아동의 외로움 평균 차이

구분	SS	df	MS	F값
절편	1169.96	1	1169.96	5342.12
어머니 애착(A)	7.06	2	3.53	16.13*
거절불안(B)	9.87	2	4.93	22.53*
A×B	.28	4	.07	.31
오차	94.61	432	.22	
절편	1132.35	1	1132.35	4862.21
어머니 애착(A)	7.38	2	3.69	15.84*
거절분노(B)	4.66	2	2.33	10.00*
A×B	.17	4	.04	.18
오차	98.51	423	.23	
절편	1141.64	1	1141.64	5239.60
어머니 애착(A)	5.82	2	2.91	13.35*
거절우울(B)	10.29	2	5.15	23.61*
A×B	.23	4	.06	.26
오차	94.13	432	.22	

\* p<.05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학령기 아동의 외로움은 어머니 애착 ( $F_{(2,423)}=16.13, p<.05$ ) 및 거절민감성인 거절불안( $F_{(2,423)}=22.53, p<.05$ ), 거절분노( $F_{(2,423)}=10.00, p<.05$ ), 거절우울( $F_{(2,423)}=23.61, p<.05$ )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어머니 애착과 거절민감성의 상호작용 효과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령기 아동의 외로움이 어머니 애착과 거절민감성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나타남을 기초로, 각 집단간 평균 및 Scheffé 사후검증 결과를 살펴보았다. <표 3>의 결과와 같이 어머니 애착이 낮은 집단은 중간이나 높은 집단에 비해 유의하게 높은 외로움을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거절불안의 경우 거절불안이 높은 집단이 중간이나 낮은 집단에 비해 외로움을 높이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거절분노나 거절우울은 거절분노나 거절우울이 높은 집단이 중간 집단과 낮은 집단에 비해, 중간 집단은 낮은 집단에 비해 외로움을 각각 높이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 어머니 애착 및 거절민감성(거절불안, 거절분노, 거절우울) 집단에 따른 학령기 아동의 외로움 평균 및 Scheffé 사후검증

변인	집단구분	외로움 평균(표준편차)	Scheffé	
어머니 애착	낮은 집단(145)	1.93(.52)	a	
	중간 집단(153)	1.66(.46)	b	
	높은 집단(143)	1.52(.48)	b	
거절불안	낮은 집단(145)	1.52(.46)	a	
	중간 집단(153)	1.64(.43)	a	
	높은 집단(143)	1.93(.56)	b	
거절 민감성	거절분노	낮은 집단(140)	1.53(.46)	a
		중간 집단(147)	1.68(.47)	b
		높은 집단(145)	1.90(.56)	c
거절우울	낮은 집단(129)	1.44(.40)	a	
	중간 집단(171)	1.71(.46)	b	
	높은 집단(141)	1.94(.56)	c	

## 2. 어머니 애착에 따른 학령기 아동의 거절민감성(거절불안, 거절분노, 거절우울) 차이 <연구문제 2>

연구문제 2인 학령기 아동의 거절민감성(거절불안, 거절분노, 거절우울)은 어머니 애착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는가를 살펴보기 위해 어머니 애착을 독립변인으로 하고 아동의 거절민감성(거절불안, 거절분노, 거절우울)을 각각 종속변인으로

하여 일원변량분석 및 Scheffé 사후검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표 4>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어머니 애착에 따라 거절민감성은 하위 영역인 거절불안( $F_{(2,438)}=32.12, p<.05$ ), 거절분노( $F_{(2,429)}=20.29, p<.05$ ), 거절우울( $F_{(2,438)}=35.88, p<.05$ ) 모두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한편 <표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어머니 애착이 낮은 집단과 중간 집단의 거절불안과 거절분노는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그러나 이들 집단은 각각 어머니 애착이 높은 집단에 비해 거절불안과 거절분노를 모두 유의하게 높게 지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거절우울의 경우 어머니 애착이 낮은 집단은 중간 집단과 높은 집단에 비해, 중간 집단은 높은 집단에 비해 각각 거절우울을 높게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 어머니의 애착에 따른 학령기 아동의 거절민감성(거절불안, 거절분노, 거절우울) 평균 차이

종속변인	어머니 애착	SS	df	MS	F값
거절불안	집단-간	15.05	2	7.53	
	집단-내	102.64	438	0.23	32.12*
	합계	117.69	440		
거절분노	집단-간	10.08	2	5.04	
	집단-내	106.53	429	0.24	20.29*
	합계	116.61	431		
거절우울	집단-간	16.57	2	8.28	
	집단-내	101.12	438	0.23	35.88*
	합계	117.69	440		

\*  $p<.05$

<표 5> 어머니 애착에 따른 학령기 아동의 거절민감성(거절불안, 거절분노, 거절우울) 평균 및 Scheffé사후검증

어머니 애착	거절불안 평균(SD) Scheffé	거절분노 평균(SD) Scheffé	거절우울 평균(SD) Scheffé
낮은 집단(145)	8.42(4.85) a	7.26(3.96) a	6.31(4.17) a
중간 집단(153)	7.38(4.33) a	6.30(3.70) a	5.22(3.37) b
높은 집단(143)	5.40(3.12) b	4.66(2.80) b	3.86(2.12) c

\*  $p<.05$

### 3. 학령기 아동의 외로움에 대한 어머니 애착과 거절민감성(거절불안, 거절 분노, 거절우울)의 상대적 영향력 <연구문제 3>

학령기 아동의 외로움에 대한 어머니 애착과 거절민감성(거절불안, 거절분노, 거절우울)의 상대적 영향력을 살펴보기 위해 어머니 애착과 거절민감성(거절불안, 거절분노, 거절우울)을 독립변인으로 하고 외로움을 종속변인으로 하여 각각 위계적 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위계적 중회귀분석을 실시함에 있어 회귀모델의 기본 가정인 독립변인 간 다중공선성 문제를 각각 확인하였다. 공차한계가 0.1 이상의 수치를 보이고, VIF가 10 이하의 수치를 나타낼 경우 독립변인간 다중공선성의 위험성은 없음을 의미한다(양병화, 2002)는 사실을 고려해 볼 때 어머니 애착과 거절불안, 어머니 애착과 거절분노, 어머니 애착과 거절우울의 위계적 중회귀분석은 독립변인간 다중공선성의 문제없이 중회귀모델의 기본 가정을 충족한다고 볼 수 있다. 공차한계와 VIF(분산팽창계수)각 각각 .92, 1.08, .91, 10.9, .91, 1.09 등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표 6> 학령기 아동의 외로움에 대한 어머니 애착과 거절민감성(거절불안, 거절분노, 거절우울)의 위계적 중회귀분석

위계	변인	외로움		adjR <sup>2</sup>	△R <sup>2</sup>	F (df)	공선성 통계량	
		B(St Err.)	β				공차 한계	VIF
1단계	상수	3.01(.16)		.13	.13	68.93*		
	어머니 애착	-.34(.04)	-.37*					
2단계	상수	2.46(.17)		.21	.08	60.97*	.92	1.08
	어머니 애착	-.26(.04)	-.28*					
	거절불안	.04(.01)	.30*					
1단계	상수	3.02(.16)		.13	.13	68.93*		
	어머니 애착	-.34(.04)	-.37*					
2단계	상수	2.57(.18)		.18	.05	49.78*	.91	1.09
	어머니 애착	-.27(.04)	-.30*					
	거절분노	.03(.01)	.23*					
1단계	상수	3.02(.16)		.13	.13	68.93*		
	어머니 애착	-.34(.04)	-.37*					
2단계	상수	2.44(.17)		.23	.09	64.75*	.91	1.09
	어머니 애착	-.25(.04)	-.27*					
	거절우울	.05(.01)	.32*					

\* p<.05

학령기 아동의 외로움을 종속변인으로 하여 어머니 애착과 거절불안, 어머니 애착과 거절분노, 어머니 애착과 거절우울을 각각 위계적 중회귀분석 한 결과, <표 6>에서 보는 바와 같이 어머니 애착과 거절불안은 학령기 아동의 외로움을 21% 설명하는 것( $adjR^2=.21$ )으로 나타났다. 이중 어머니 애착( $\beta=-.28$ )보다 거절불안( $\beta=.30$ )이 학령기 아동의 외로움을 조금 더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머니 애착과 거절분노는 학령기 아동의 외로움을 18% 설명하는 것( $adjR^2=.18$ )으로 나타났다. 이중 어머니 애착( $\beta=-.30$ )이 거절분노( $\beta=.23$ )보다 학령기 아동의 외로움을 조금 더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머니 애착과 거절우울은 학령기 아동의 외로움을 23% 설명하는 것( $adjR^2=.23$ )으로 나타났다. 이중 어머니 애착( $\beta=-.27$ )보다 거절우울( $\beta=.32$ )이 학령기 아동의 외로움을 조금 더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IV. 논의 및 결론

대구경북지역 6개 초등학교 4, 5, 6학년 441명을 대상으로 학령기 아동의 외로움을 어머니 애착과 거절민감성 측면에서 살펴본 이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논의 및 결론을 도출하였다.

첫째, 학령기 아동의 외로움은 어머니 애착과 거절불안, 거절분노, 거절우울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어머니에 대한 애착이 낮은 집단의 아동은 어머니에 대한 애착이 높은 집단의 아동에 비해 또래 관계에서 외로움을 유의적으로 높게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는 외로움을 높이 지각하는 어린 아동의 경우 어머니와의 애착관계가 불안정한 관계였다고 보고한 연구결과(Allen, Moore, Kuperminc, & Bell, 1998; Berlin, Cassidy, & Belsky, 1995; Hay, Payne & Chadwick, 2004) 및 어머니에 대한 애착이 낮은 남녀 중학생 모두 높은 외로움을 보고했다는 연구결과(도현심, 1999)와 유사한 것이다. 어머니에 대한 애착이 또래 관계에서의 외로움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어머니와 형성된 사회적 관계의 질이 내적 표상으로 작용하면서, 어머니와의 관계에서 가지는 정서감을 또래 관계 안에서도 갖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어머니와의 관계에서 안정된 애착을 발달시킨 아동은 또래와의 관계에서도 안정감을 기대할 가능성이 크며 이로 인해 외로움을 좀 더 낮게 지각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어머니와의 관계에서 안정되지 못한 애착을 발달시킨 아동은 또래와의 관계에서도 불안한 감정을 기대하게 되고 이로 인해 높은 외로움을 경험한다고 볼 수 있다. 이는 부모인 어머니와의 사회적 관계가 친구관계 속에서 자신을 평가하는 기준이 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한편 거절불안이 높은 집단, 거절분노가 높은 집단, 거절우울이 높은 집단의 아동이 그렇지 않은 집단의 아동에 비해 높은 정도의 외로움을 친구관계로부터 지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는 거절민감성이 높은 초등학생이 보다 더 공격적으로 행동하며 대인간 어려움을 보다 많이 경험한다고 보고한 Downey 등(1998)의 연구결과와 유사한 것이다. 한편 거절민감성이 높은 중학생이 보다 높은 외로움을 나타냈다고 보고한 London 등(2007)의 연구결과와 유사한 것이다. 거절민감성이 외로움과 유의한 관련성을 보이는 것은 거절민감성이 높은 아동의 경우, 거절이 기대되는 사회적 관계 안에서 관계 불안과 함께 관계 철회를 느끼므로 보다 쉽게 외로움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으로 보여진다.

이와 같은 결과 외에 학령기 아동의 외로움에 대해 어머니의 애착과 거절불안 또는 어머니의 애착과 거절분노 또는 어머니의 애착과 거절우울간 상호작용효과는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학령기 아동의 외로움에 미치는 거절민감성의 영향이 어머니 애착의 정도에 의해 유의하게 낮아지거나 유의하게 높아지지 않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둘째, 학령기 아동의 거절민감성은 어머니 애착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어머니 애착이 낮은 집단의 아동은 그렇지 않은 집단의 아동에 비해 거절불안, 거절분노, 거절우울 등 거절민감성이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는 학령기 아동의 부모에 대한 애착관계가 거절민감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인임을 밝힌 이경숙 등(2000)의 연구결과를 지지하는 것이다. 부모에 대한 애착은 사회적 관계의 표상이 되기 때문에 안정적이지 못한 애착을 형성한 아동은 타인과의 관계에서도 안정적이지 못한 관계를 기대하기 쉽다. 이러한 기대가 사회적 관계에서, 거절기대 및 그로 인한 불안감이나 분노감 또는 우울감을 상대적으로 더 높이는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다.

셋째, 학령기 아동의 외로움은 어머니 애착과 거절민감성(거절불안, 거절분노, 거절우울)에 의해 각각 유의하게 설명되나, 어머니 애착보다 거절불안, 거절우울에 의해 좀 더 많이 설명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거절분노의 경우 어머니 애착보다 학령기 아동의 외로움에 미치는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어머니 애착이 학령기 아동의 외로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변인임은 선행연구(도현심, 1999; 문소현, 2009)를 통해서 반복적으로 확인되었다. 그러나 어머니 애착보다 학령기 아동의 외로움을 좀 더 잘 설명하는 것은 거절민감성이라 할 수 있다. 비록 거절민감성 중 거절분노의 경우 어머니 애착보다 학령기 아동의 외로움에 대한 설명력이 떨어졌지만 거절불안이나 거절우울은 학령기 아동의 외로움을 좀 더 많이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머니와의 사회적 관계인 애착보다

거절민감성 특히 약 10%의 설명력 증가분을 가져온 거절불안( $\Delta R^2=.08$ )과 거절우울( $\Delta R^2=.09$ )이 학령기 아동의 외로움에 보다 많은 설명력을 지닌다는 연구결과는 사회적 관계에 대한 아동 자신의 인지적 평가가 우선 더 중요함을 의미하는 것이며, 거절민감성을 완화시킬 수 있는 인지 중심 체험 프로그램이 학령기 아동의 외로움을 중재하는데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학령기 아동의 외로움을 사회적 관계인 어머니 애착 뿐 아니라 아동 자신의 인지적 특성인 거절민감성을 통해 살펴본 이 연구는 학령기 아동의 거절민감성 연구가 척박한 현실에서 거절민감성에 대한 학문적 관심을 유도했다는 면에서 학문적 의의를 찾을 수 있다. 특히 거절민감성을 거절불안, 거절분노 그리고 거절우울로 각각 접근함으로써 거절민감성에서 보다 관리되어야 하고 중재되어야 할 감정을 확인했는데 의미를 갖는다. 이외 이 연구에서는 부모와의 관계 및 또래 관계 등 사회적 관계 등에서 학령기 아동의 외로움을 접근한 기존 연구와 달리 아동 자신의 인지적 특성을 통해 외로움을 이해하려 했다는 면에서도 학문적 의미를 찾을 수 있다. 그러나 대구경북의 일부 지역 안에서만 자료 수집함으로써 연구결과를 일반화하는데 한계점을 지니며 다양한 변인을 통해 통합적으로 학령기 아동의 외로움을 접근하지 못했다는 연구의 제한점을 지니고 있다. 추후 연구에서는 이러한 제한점을 고려하여 연구설계해야 할 것이며, 학령기 아동의 외로움 감소에 실질적 도움을 줄 실용적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사회적 관계에 대해 건강하게 인지할 수 있는 거절민감성 중재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관심을 가졌으면 한다.

## 참 고 문 헌

- 도현심 (1996a). 아동의 수줍음, 대인적응성 및 또래수용성과 외로움간의 관계. **아동학회지**, 17(2), 33-45.
- 도현심 (1996b). 부모의 온정성 및 통제성과 아동의 외로움. **대한가정학회지**, 34(6), 1-11.
- 도현심 (1999). 부모에 대한 애착 및 또래경험과 초기 청소년의 외로움간의 관계. **아동학회지**, 20(3), 33-49.
- 문소현 (2009). 학령기 후기 아동의 또래관계, 부모 양육태도, 애착안정성 및 외로움. **대한가정학회지**, 39(3), 401-408.
- 박지윤 (2003). 아동용 거절 민감성 척도 개발을 위한 탐색적 연구. 부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이경숙, 서수정, 신의진 (2000). 학령기 아동들의 부모에 대한 애착관계가 거부민감성 및 또래 관계에 미치는 영향. **소아 청소년정신의학**, 11, 51-59.
- 신혜영, 최해림 (2003). 부모로부터의 학대경험과 공격성 및 대인불안의 관계: 초등학교 고학년 아동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5(2), 295-307.
- 양병화 (2002). **다변량 자료분석의 이해와 활용**. 서울: 학지사.
- 장미희, 이지연(2011). 모애착, 거부민감성, 정서조절능력이 아동의 또래관계에 미치는 영향. **한국놀이치료학회지**, 14(1), 35-53.
- 최보가, 임지영 (1999). 또래괴롭힘이 아동의 외로움과 불안에 미치는 영향: 초등학교생과 중학생을 대상으로. **대한가정학회지**, 37(5), 1999.
- 탁정미, 이주희 (2005). 초등학교생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가 아동의 외로움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복지연구**, 7(1), 141-155.
- 황은수, 성영혜 (2006). 아동의 학대경험이 자기인식정서와 거절민감성에 미치는 영향. **놀이치료연구**, 9(3), 67-84.
- Allen, J., Moore, C., Kupermine, G., & Bell, K. (1998). Attachment and adolescent psychosocial functioning. *Child Development*, 69(5), 1406-1419.
- Armsden, G. C., & Greenberg, M. T. (1987). The inventory of Parent and Peer Attachment: Individual differences and their relationship to psychological well-being in adolescence.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16(5), 427-453.
- Asher, S. R., & Wheeler, V. A. (1985). Children's loneliness: A comparison of



- rejected and neglected peer status.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53, 500-505.
- Berlin, L. J., Cassidy, J., & Belsky, J. (1995). Loneliness in young children and infant - mother attachment: A longitudinal study. *Merrill-Palmer Quarterly*, 41, 91 - 103.
- Bowlby, J. (1980). Attachment and loss (Vol. 3). New York: Basic Books.
- Downey, G., & Feldman, S. (1996). Implications of rejection sensitivity for intimate relationship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0, 1327 - 1343.
- Downey, G., Feldman, S., & Ayduk, O. (2000). Rejection sensitivity and male violence in romantic relationships. *Personal Relationships*, 7, 45 - 61.
- Downey, G., Khouri, H., & Feldman, S. (1997). Early interpersonal trauma and interpersonal adjustment: The mediational role of rejection sensitivity. In D. Cicchetti & S. Toth (Eds.), *Rochester Symposium in Developmental Psychopathology, Volume VIII: The effects of trauma on the developmental process* (pp. 85 - 114). Rochester, New York: University of Rochester Press.
- Downey, G., Lebolt, A., Rincon, C., & Freitas, A. L. (1998). Rejection sensitivity and children's interpersonal difficulties. *Child Development*, 69, 1074 - 1091.
- Feldman, S., & Downey, G. (1994). Rejection sensitivity as a mediator of the impact of childhood exposure to family violence on adult attachment behavior. *Development and Psychopathology*, 6, 231 - 247.
- Hay, D. F., Payne, A., & Chadwick, A. (2004). Peer relations in childhood. *Journal of Child Psychology and Psychiatry*, 45(1), 84-108.
- London, B., Downey, G., Bonica, C., & Paltin, I. (2007). Social Causes and Consequences of Rejection Sensitivity. *Journal of Research on Adolescence*, 17(3), 481-506.
- Peplau, L. A. & Perlman, D. (1982). Perceptives on Loneliness. In L. A. Peplau & Perlman, D(Eds.). *Loneliness: A sourcebook of current theory, research and therapy*, 1-18. New-York: Wiley-Interscience.

## ABSTRACT

This study investigated the influence of mother attachment and rejection sensitivity on school-age children's loneliness. The participants were 441 school-age children in Daegu or Gyeongbuk Province. The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by One-way and Two-way ANOVA, and Multiple Regressions, using SPSS PC(15.0 version). The results were as follows.

(1) School-age children with a lower level of mother attachment perceived higher level of loneliness than children with a higher level of mother attachment. And school-age children with a higher level of rejection sensitivity perceived higher level of loneliness than children with a lower level of rejection sensitivity.

(2) School-age children with a lower level of mother attachment perceived higher level of rejection sensitivity than children with a higher level of mother attachment.

(3) The explanation power of rejection sensitivity on school-age children's loneliness was rather higher than mother attachment.

**Key words** : school-age children's loneliness, rejection sensitivity,  
mother attachment